

동구, 삶·생활 만족도 광주 1위…‘살고 싶은 도시’ 도약

‘광주 사회지표’ 발표…행복 체감도 ‘최상위’·걱정 수치 가장 낮아
광산구, 행복지표·걱정 체감도 ‘최하위’…서구, 삶의 만족도 하위

지난해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행복 체감도 등에서 모두 최상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산구는 전반적인 평가 부문에서 평균을 밑돈 데다 행복 체감도와 걱정 체감도 등 지표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2025년 광주사회지표’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감’ 부문 가운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동구가 6.96점(10점 만점)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남구 6.40점, 북구 6.37점, 광산구 6.30점 순이었으며 서구는 6.24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시 전체 평균은 6.37점으로 전년보다 0.06점 감소

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62점으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동구가 6.7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구 6.36점, 광산구 6.27점, 북구 6.20점, 남구 6.14점 순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6.28점으로 전년 대비 0.05점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37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 후반이 6.06점으로 가장 낮았다. 행복 체감도를 나타내는 ‘여제 행복’ 지표에서도 동구는 6.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북구 6.33점, 남구 6.22점, 서구 6.17점, 광산구 6.15점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평균은 6.27점으로 전년보다 0.05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5.85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걱정 체감도인 ‘여제 걱정’ 수치는 동구가 3.64점으로 가장 낮았고 광산구가 4.67점으로 가장 높았다. 남구 3.95점, 서구 4.37점, 북구 4.42점 순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4.35점으로 전년보다 0.20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10대 후반이 4.75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사회지표’는 광주시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는 공식 통계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비롯해 소득·주거·교통,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처럼 동구는 3개 긍정 지표가 광주시 평균을 크게 웃돌고, 1개 부정 지표는 평균을 밑도는 등 수치상 주민들의 행복감은 높아지고 걱정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3개 긍정 지표는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부정 지표 역시 유일하게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동구는 이를 ‘인문도시’라는 브랜드를 앞세운 지난 7년간 ‘도시 체질 개선’ 성과로 보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낙후된 원도심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는 집수리 사업과 스마트 안전·건강도시 정책을 결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자원순환형 그린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며 도시 기반 확장에도 주력했다. 동구는 초고령사회라는 지역 특성에 대응해 복지 정책도 강화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돌봄 이웃 전수조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디지털 스마트 생활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목표로 보건소를 4개 과 체계로 재편했으며,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도 병행 추진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50억원 규모로 발행한 지역화폐 ‘광주 동구랑페이’를 올해 80억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AI 창업 실증 밸리와 AI 헬스케어 동구타워, AI 창의문화복합공간 ‘시소총장’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등 주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예전보다 지금 동구에서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체감하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을 고도화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다복다복’ 소원 연 만들어요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가족센터에서 열린 설맞이 ‘다복다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명절 음식인 산적을 부치며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 정상화·조직 운영 개선 본격화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 정상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위기 대응과 운영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영혁신위원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6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졌으며, 공공행정·안전·법무·회계·체육·경영·ESG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자문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을 경영 실무에 반영하고, 이후 회의에서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 과제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용욱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경영혁신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공단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중심의 혁신 기구”라며 “경영 위기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동구, 공직자 비위 행위 ‘QR코드 신고 시스템’ 도입

광주시 동구가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동구는 지난 5일부터 민원 부서와 청사 로비 등 4개소에 ‘부패·비위행위 QR코드 신고 배너’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품·향음 요구, 특혜 제공, 직무 관련 부정행위 등 공직자 부패·비위행위를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된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다. 특히 신고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비밀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철저히 금지된다. 동구는 QR코드 신고 시스템 운영 결과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충은 물론, 제도 개선 등으로 연계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북구, 중소기업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무료 지원

광주시 북구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법정 의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정 의무 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 강사 초빙 비용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올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 보건 등 6개의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중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수강인원 150명 정원으로 상시노동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교육 기관인 에이치알디이인재개발원에 위탁해 오는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참여신청서 등을 이메일(safe@hrdei.kr)로 제출하고,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북구는 교육이 종료되면 수강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분야 대상

광주시 남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에서 대상상을 받았다. 남구는 지난 9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에서 전국 226개를 대상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서

기부문화 확산과 전국 최고 수준의 모금 실적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자의 공감과 지역사회 변화를 연결하는 발판으로 삼아 공익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과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IGFA 보험GA협회